



[미국 - 양돈가 옥수수값 부셸당 4달러에 익숙해져야]

- 미국 아이오와주 양돈 생산자 총회가 열린 가운데 생산자들은 옥수수 가격에 관심 증폭.
-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수요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두 배로 올랐으며 2007년에도 60%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양돈업계는 3년간의 흑자를 마감하고 적자로 전환.
- 올 해의 가장 큰 이슈는 양돈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아이오와 양돈업자이자 미국 National Pork Board Tim Bierman 의장은 설명.
- 아이오와주립대 Dermot 교수는 이이오와 양돈생산자협회의 참가자들에게 옥수수 가격 부셸당 4달러에 익숙해져야 하며 또한 이렇게 사료원가가 오른 현실에서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끼들에게 드는 비용을 10% 정도 절감해야 한다고 설명.
- Dermont 교수에 따르면 에탄올 생산에 필요한 옥수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국 축산업이 소비하고 있는 옥수수의 전체적인 양을 매년 60억 부셸에서 40억 부셸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양돈 산업은 에탄올 원료 부산물을 젖소나 육우와 같이 효율적인 사료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

(라이브뉴스)

[미국의 장기적 옥수수 수요와 공급 및 가격 전망]

- 지난 10년간의 미국 옥수수 가격 변화 추세
매 30년마다 한 단계씩 가격이 60% 이상 폭등했으며, 2006년 이후 향후 30년까지 또 한 단계의 가격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미국 옥수수의 생산성 및 생산량 추세
유전적 품종개량과 영농법 개선을 포함한 기술개발 등의



요인으로 1994년까지 에이커당 옥수수 수확량은 연간 1.5%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6년 유전자 변환기술을 이용한 바이오테크 기술이 도입된 후 수확량은 매년 2%씩 상승함. 최근 들어 한파에 내성을 지닌 옥수수 품종도 개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확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옥수수 수요변화 추세

지난 10년간 에탄올을 제외한 나머지 옥수수 시장은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했으며, 담보상태이거나 약간 위축됐고, 가축 사료용 수요만 조금 성장했을 뿐임. 에탄올 시장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옥수수 가격은 하락하고 옥수수 대신 다른 농작물을 재배했을 것임.

- 옥수수 대체원료로서의 에탄올 부산물 DDGS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대부분(56%)은 가축 사료용으로 이용되는데 에탄올 생산량이 늘어나면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육류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큼. 향후 10년간 옥수수의 생산량 증가와 DDGS의 옥수수 대체비율을 높인다면 옥수수 가격의 폭등과 육류 가격상승은 우려에 그칠 수도 있음.

(출처 : 미국곡물협회/정 P&C 연구소)

[최근의 해운시황]

- 파나마운하 향후 2년간 통행세 인상

파나마운하공사는 최근 예산확대를 위한 자금충당의 일환으로 향후 2년 동안 파나마 운하통과선박에 대한 통행세를 인상기로 결정함.

- 선급별 운임동향

- 케이프사이즈급 벌커 용선시장상승세 지속될 전망

최근 케이프사이즈 대서양-태평양 항로는 일일 9만달러선을 넘어 9만 3천달러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운임급등은 주로 철광석 구매계획에 따른 중국 및 기타 철강생산국들의 영향 때문임.

- 파니막스와 핸디막스 시장하락세 지속

케이프 시장의 상승세는 파니막스와 핸디막스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 하락세의 원인은 가용선복에 대한 가시적인 큰 수요는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요부족 현상이 대서양과 태평양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함.

(출처 : 선박회사 제공)

[경남도 가축사료(조사료) 안정적 생산 공급]

- 경남도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축조사료생산 추진계획 확정·발표
- 경남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채보리 사료화사업”은 전년 630ha보다 340ha가 증가한 970ha를 재배하여 총1만9400톤의 총채보리 담근먹이를 생산할 계획임
 - 재배면적: (‘03) 37ha → (‘04) 233ha → (‘05) 456ha → (‘06) 630ha → (‘07) 970ha
 - 조사료 생산지원액: (‘03) 2,828백만원 → (‘05) 3,642백만원 → (‘07) 5,678백만원
- 약19억원 상당의 수입건초 및 배합사료 4,656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e-goodnews 2/14)

[부시-톨라, ‘바이오에탄올 회담’]

- 브라질 톨라 대통령은 최근 북동부 바이아주(州) 이라콰리에서 열린 바이오 디젤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 “다음달 8일 열리는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바이오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미국 역시 막대한 양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지만 원료가 가축사료인 옥수수리는 점에서 대량생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브라질산 바이오에탄올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

(02/14, 에너지경제신문)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
- 정부는 건축연면적 200㎡(60여평)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 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농업관련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

(농수축산신문, 2/16)

[일본 - 배합사료안정기금, 자원 부족이 현실 문제에]

- 일본 2/4분기 배합사료 가격은 세계 穀價 앙등 지속 및 달러약세에 따라



1/4분기에 비해 하락 요인이 없어 가격 인상이 확실시 됨.

- 따라서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의 보충재원 부족이 현실화 될 것 같음. 안정 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3월말에 톤당 4,500엔대의 통상 보충 재원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대로 진행된다면 금년도 기금보충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
- 금년도 4월부터의 적립금의 증액(500엔)이나 이상 기금의 보충에 의한 원조가 있다고 해도, 2/4분기 가격 인상이 실시되면 교부금액이 대폭 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상기금재원이 고갈하는 상황도 예측된다고 전언

(출처 - 일본농업신문)

[06/07 브라질 곡물 생산량, 과거 최고치 전망]

- 브라질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는 2007. 2.8일, 2006/07년도 주요곡물 생산상황 조사 결과를 발표
-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부 면적은 소폭 감소해 전년도 대비 3.8%감소의 4,553만 ha(전년도 4,733만 ha)가 예상되지만, 기후호조에 따른 생산성 증대로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7%증가한 1억 2,648만 톤(전년도 1억 2,07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
- 이는 과거 최고치인 2002/2003년도의 생산량 1억 2,320만톤을 웃도는 것으로 전세계 곡물가격의 안정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됨.

(출처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주재원 리포트 요약)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
- 정부는 건축연면적 200㎡(60여평)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 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농업관련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

(농수축산신문, 2/16)

[호주 - 06/07년 겨울곡물 전년대비 61%감소, 여름곡물도 減産 전망]

-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은 2월 20일, 4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 최신

의 곡물 생산 전망을 발표

- 수확을 끝낸 06/07년 겨울곡물(7~6월)의 총생산량은 1,570만톤으로 전년대비 61%가 감소된 것으로 역사상 최악의 한발이 닳았던 94/95년의 1,470만톤 이하의 최저수준임.
- 또한 06/07년의 여름곡물의 생산량에 대해서도 한발의 영향에 따른 식부면적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59%감소의 190만 톤으로 전망

(출처 -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 홈페이지)

[일본 - 농림수산성, 사료가격 인상에 대응 방안 토의]

- 일본 농림수산성은 2월 23일, 식량·농업·농촌정책 심의회 2006년 축산부문 회의를 열고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방안을 논의
- 농림수산성 축산국은 우선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의 적절한 운용으로 사료가격인상분을 최대한 흡수하고, 볏짚발효사료 및 옥수수사일리지 등 자급사료의 생산증진 및 방목이용의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
- 또한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의 상승이 적정하게 소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공·유통업자, 소비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함.

(출처 - 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

[헤지펀드 - 에탄올 전환설비에 집중투자]

- 국제시장에서 곡물에 투자해 온 헤지펀드들이 대형 곡물창고 에탄올 제조설비, 농장등 곡물 관련 자산을 그들의 실물자산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있음.
- 이는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는 곡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헤지펀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 특히, 축산업의 발전과 함께 사료 자원으로써 헤지펀드들의 집중적인 투자 대상이었던 옥수수의 경우, 대체 에너지인 에탄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옥수수-에탄올 전환 설비에 대한 헤지펀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는 헤지펀드는 이처럼 곡물 관련 자산을 직접 사들이고 운영함으로써, 옥수수부터 밀에 이르기까지 각종 곡물이 거래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곡물 가격의 움직임에 영



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난해 옥수수과 밀 가격이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곡물 및 곡물 관련 시장에 대한 헤지펀드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월스트리트저널(WSJ), 2/26)

[미국, 아르헨티나 옥수수 밭 ‘노다지’ 변신]

-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농지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 농지가격의 급등원인은 최근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에탄올 원료로 옥수수 인기가 치솟은 것에 있음.
-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농지가격은 옥수수 밭 가격급등에 힘입어 15% 상승하였으며, 미국 최대의 옥수수 산지인 아이다호주의 농지가격은 35% 급등함.
- 농지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옥수수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82%나 급등함. 웨스트체스터 그룹의 무레이 와이즈 최고경영자는 “옥수수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앞으로 18개월간 농지 수익률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 metro, 2/23)

[2007년도 중국 곡물가격 전망]

- 올해의 중국내 곡물가격은 국내의 곡물공급 불균형과 높은 국제 곡물가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인 전망이나, 옥수수 가격은 대체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더 오를 전망이다
- 많은 분석가들은 에탄올 및 대체 연료용 옥수수 수요의 증가로 인해 조만간에 중국이 옥수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함. 현재 중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1백 5십만톤이며 주로 사료용 옥수수와 소맥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쿼터 시스템과 고율의 관세로 곡물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작년도 옥수수 수출량은 3백 7만톤이며, 수입량은 65천 217톤(주로 미산임)에 그침.

(출처 : CBOT 2월 뉴스 종합)

[곡물가 급등에 바이오업계 올상, 생산 중단 속출]

- 지난 23일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옥수수 가격은 작년 한 해 동안 두 배가량 오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제유가는 1년 전보다 하락한 상태로 바이오연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
- 이에 따라 유럽의 바이오연료 업체들은 생산량을 절반이하로 줄이거나 공장기동을 중단하는 등 고전을 겪고 있음.
-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밝다고 예측.

(02/28, 에너지경제신문)

[CKF, 사업다각화 위해 신사업 추진]

- CKF는 26일 공시를 통해 배합사료 업체에서 대체에너지, 선물거래, 통신, 부동산 등의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목적을 변경한다고 발표
- 또한 금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삼성출신과 중앙일보 출신등을 이사와 사외이사 후보로 상정하였음.
- 한편, 2월초 CKF의 최대주주가 된 김도우씨는 1월초에 대한은박지공업을 인수 했는데 김씨가 납입자본금 50억원짜리 회사를 인수해 대규모 증자를 반복함에 따라 일각에선 LBO(매수기업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인수·합병)와 관련된 자금조달일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CKF도 유상증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음.

(02/28, 매일경제)

[해외 사료곡물 관련 정보]

- 07/08년도 호주 소맥 생산 예년 수준 회복 전망
 - 호주의 농업 자원 경제국(ABARE)은, 07/08년 소맥 생산 예상량을 2,498만 톤으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예상(※ 06/07년 소맥 생산량은 가뭄으로 980만 톤까지 감소)
- 알젠틴 곡물 생산량, 대폭 증가 전망
 - 아르헨티나 농목 어업 식량청(SAGPyA) 06/07년 주요 곡물의 생산예측을 공표
 - 옥수수 생산량은 과거 최고치를 기록한 97/98년의 1,936만 톤을 웃도는



2, 100~2 200만 톤이 전망

- 대두에 대해서도 05/06년의 4,050만 톤을 넘는 4, 250~4, 450만 톤의 신 기록을 예측

• 07/08년 美 옥수수 식부 면적 사상 최대의 식부면적 예상

- USDA는 옥수수의 식부면적이 8, 700만 에이커로 06/07년도에 비해 870만 에이커가 증가되어 사상 최대의 식부 면적량을 예상

- 대두는 7, 050만 에이커로 06/07년도에 비해 500만 에이커의 감소로 예측

- 일본 종합상사주재원에 따르면 美 중서부는 대두에서 옥수수로의 轉作이 많고 남부는 면실에서 옥수수로의 轉作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해외주재원 리포트 요약)

[중국, 연속 3년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 중국인민은행이 일전에 발표한 4/4분기 화폐정책 보고에 따르면 중국농업은 국제경쟁에서 비교적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으며 연속 3년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힘. 이는 선진국의 농산물 보조 및 무역장벽 등의 정책과 아울러 현재 중국 농업생산방식이 비교적 낙후된 점 등의 원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인민은행은 전함.

• WTO 가입 후 중국 농산물 국제무역은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5대 농산물 수출국과 4번째 농산물 수입국이 되었지만, 중국농업이 직면한 국제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자연자원 부족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농민의 소득증가 유지의 어려움이 커져, 농업과 농촌발전은 여전히 어려운 단계에 처해 있다고 인민은행은 밝힘.

(출처 : 상하이 aT센터, 3/2)

[건화물선 시장, 포스트 파나막스 뉴 트렌드 열풍]

• 기존의 건화물선은 재화중량 톤수를 기준으로 핸디사이즈(2만 5,000~4만 5,000 DWT), 파나막스(5~8만 DWT) 및 케이프사이즈 급(12만 DWT 이상)으로 크게 구분되어 왔으나, 최근 건화물선 시장에서 이러한 전통적 구분방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현재 선주들은 8만 DWT~12만 DWT 사이의 건화물선을 선호함에 따라 이 선형이 건화물선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

이 집중되고 있음.

- 신 건화물선 모델이 선호되는 이유는 기존의 케이프사이즈와 파나마스 항로뿐만 아니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와 같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항로에서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실제로 2014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파나마 운하 확장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포스트 파나마스 선을 통해 기존의 파나마스 선보다 더 효율적인 화물 수송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출처 : 선박회사 정보제공, 3/5)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에도 가격 상승세 예상]

- 미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옥수수 재배농가들은 2007년 옥수수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870만에이커(acre) 증가한 8천700만에이커(acre)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면적에서 정상적인 수확률이 나온다면 약 122억부셸(bushel)의 옥수수가 생산될 수 있는 면적이다.
- 2007년 에탄올연료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수수의 양은 작년보다 약 10억5천만부셸(bushel) 증가한 32억부셸(bushel)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옥수수 생산량은 에탄올 생산에 필요한 옥수수 수요량에 비해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내 에탄올 생산은 더욱 활기를 띠 것이고 옥수수의 공급이 그러한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옥수수 가격은 지금보다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Cattlebuyersweekly, March 5, 2007) (미국 육류 수출협회)

[삼양사, 한국바스프 라이신사업 인수 추진]

- 삼양사는 최근 실사단을 파견해 한국바스프 군산 현지 생산설비를 견학하고 매각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협의를 거쳐 빠르면 3월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월경 최종 매각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 삼양그룹은 2007년에 인수·합병(M&A)과 세계화를 통한 사업다각화와 생산성 향상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비전을 올해 초 발표하고 특히 핵심사업으로 화학·식품·의약을 선정,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한다는 전략임.



■ 바스프 군산공장은 사료용 라이신 연산 10만 생산설비와 비타민B2 3천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1998년 약 9천억원에 (주)대상의 라이신 사업을 인수했었으며 라이신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 약 15억달러로 추산

(03/06, EBN산업뉴스)

[中 곡물생산 3년 연속 증가...수급 불균형은 여전]

■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5억톤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신화통신이 보도

■ 전문가들은 향후 변덕스런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과 농법을 개발되지 않으면 중국의 잠재 곡물생산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했으며 기관지 학습시보에 따르면 2010년 곡물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480만 가량의 식량 부족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03/03, 아시아경제)

[일본 젨노(全農) - 배합사료 회사의 광역합병에 의한 공장 재편 가속]

- 일본 젨노 '07.3.9일 2007~2009년 3개년사업 계획안을 발표
- 축산사업은 (1) 축산 판매사업의 강화 (2) 축산 농가의 생산지원과 생산기반 대책강화 (3) 사료 원료의 확보강화 (4) 낙농사업의 강화계획임.
- 사료 사업에서는 지역별 사료회사의 연간 판매량 200만 톤 이상의 광역 합병을 목표로 소규모·노후화 공장의 폐쇄와 대형 공장에의 통합을 통해 배합사료 제조 코스트의 절감을 꾀하고자 함.

(출처 : 일본 젨노 홈페이지)

[일본 젨노(全農) - 사료원료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 계획(안) 발표]

- 일본 젨노는 각지구(현) 별 대표회를 통해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사료 원료 가격의 상승과 젨노의 대응」을 발표
- 젨노는 이러한 현 상황은 최소수년은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본 축산의 존망과 관계되는사태라고 염려

- 이에 미국 해외 자회사와의 제휴에 의한 집하력(集荷力) 강화 및 미국 이외의 産地의 다원화나 신규 원료의 개발과 동시에 축종마다 생산성 향상 대책을 책정해 생산자·산지의 경영체질의 강화에 임할 것임을 천명
- 구체적으로는 3월 중 프로젝트 팀을 올려 그 대응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시켜 4월에 축산사업 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책을 제안할 예정

(출처 - 일본 젠노 홈페이지)

[러시아, 농산물 가공설비 현대화 사업 박차]

- 러시아 정부는 농업발전을 국정 4대 과제로 선정, 전략적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산물 가공산업 현대화 작업이 진행.
- 세계 최대의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기후 및 노후화된 가공설비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자 구소련연방 시절부터 사용하던 재래식 가공설비들을 독일·미국·캐나다산 신형 장비들로 교체하는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러시아 농산물 가공업체 관계자들은 구미지역 설비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품질은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1/3에 불과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고 함.
- 러시아의 연간 곡물생산량(단위 : 만톤)은 밀(4,500), 호밀(2,960), 보리(1,810), 옥수수(360), 해바라기(1,000), 콩(100), 쌀(70)임.

(출처 : 연합인포맥스 3/13)

[중국, 2월 대두 수입량 118만 톤]

- 상하이 3월 12일자 소식통의 중국 세관총서에서 공포한 기초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의 2월 대두 수입량은 118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하였다고 밝힘.
- 중국국가양유정보센터의 한 분석가는 향후 수개월 후 대두 수입량은 증가될 것이며 3, 4월 대두 수입량은 월별 250만 톤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두 수입국으로서 대부분의 대두는 미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고 있음.

(출처 中国食品产业网 3.13)



[정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감축 추진]

- 농림부가 지난달 28일 항생제 관련 관계자들과 실시한 회의에서 배합사료 내에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사용량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자 업계에서는 당초 배합사료내 항생제를 53종에서 25종으로 줄인 뒤 배합 사료내 사용량은 줄었지만 농가 사용량은 증가한 만큼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의 감축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농가의 항생제 사용량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감축 방안이 병행돼야한다고 지적.

(03/15, 농어민신문)

[대상그룹, 베트남 축산사료 공장 준공]

- 대상그룹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 흥옌성에서 축산사료 생산기업 미원팜스 코비나를 설립하고 3월8일 공장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베트남의 사료사업에 본격 진출.
- 미원팜스코비나는 대상팜스코와 대상그룹의 베트남 법인인 미원베트남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6년 1월 공사를 시작해 1년여만에 공장 준공식을 갖고 12만톤의 축산사료를 생산할 예정임.

(03/09, 켐로커스)

[CKF, SY그룹 지주회사로]

- CKF는 15일 주주총회에서 CKF는 총 28개에 달하는 사업목적을 추가·변경하면서 사명을 SY주식회사로 변경하고 SY그룹의 지주회사로 탈바꿈하고 최대주주인 김도우씨를 대표이사로 선임.
- SY주식회사는 배합사료사업을 병행하면서 제조업, 부동산개발 및 시행, 금융, 에너지, IT 등 5개 사업군을 이끌게 되며, SY에이앤지, SY공조, SY케미칼, SY이노텍, SYD&C, SY투자자문, SYM&A 컨설팅, SY인터넷미디어, SY트라이비전, SY선물, 동암파트너스 등 11개 관계회사와 자회사를 두고 현재 추진중인 SR선물 인수 작업을 비롯해 추가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03/15, 매일경제)

[일본 젨노(全農) - 2007. 2/4분기 배합사료 가격 11.0% 인상 발표]

- 일본 젨노는 2/4분기 배합사료 가격을 3.19일 전축종 평균 톤당 3,200엔(11.0%인상)의 가격 인상을 발표, 이는 2006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가격 인상이 되어 그 합계 가격인상폭은 톤당 10,400엔(44.6%)에 이릅니다.
- 이번 가격 인상은 옥수수 가격이 톤당 230\$ 이상의 상승이 주요인으로 발표
- 단,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의 보충 교부로 실질 가격 인상폭은 톤당 약 1,500엔(4.7%)이 될 것으로 예상

(출처 : 일본 젨노 홈페이지)

[일본 농림수산성 - 2007. 배합사료 상승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에 저리용자 제도 신설]

-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 정책 심의회 생산 분과회 축산 부회에서는 배합사료 가격 상승 대책으로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 코스트가 축산물 판매 수입을 웃돌았을 경우에 연리 1.4~1.5%,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용자를 실시한다고 발표
- 용자 범위는 총액 450억엔으로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이자보급이나 채무보증의 지원 형태로 실시하며 용자한도액은, 비육우 1마리 당 2만엔, 젖소 1만 5,000엔, 돼지가 1마리 당 4,000엔, 닭은 100마리 당 2만엔으로 설정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바이오디젤의 원료 자트로파]

- 자트로파 오일을 에스테르화하여 만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비는 석유디젤과 같거나 저렴하다. 보통 종자는 30% 정도의 기름을 함유하는데 추출율은 91-92%가 된다. 1킬로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려면 1.05킬로의 오일이 필요하다. 글리세린을 회수하여 판매하면 부가적인 소득이 된다. 글리세린 가격은 대량생산을 할 경우 가격이 낮아질 염려가 있으며 이것은 바이오디젤 생산가를 올린다. 그러나 새로운 용도개발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다. 원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바이오디젤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간주된다.
- 자트로파 오일을 에스테르화하여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은 석유디젤과 생산비가 같거나 저렴해 질 수 있다. 자트로파 바이오디젤의 부산물은 깻묵과 글



리세린인데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 깻묵은 아주 좋은 유기질 비료로 영양이 풍부하다. 그것은 또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데 가스는 요리에 사용할 수 있고 잔재물은 다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깻묵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글리세린은 에스테르화 과정의 부산물로 생산된다. 이 부산물은 바이오디젤의 코스트를 석유디젤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바이오디젤의 가격 구성요인은 종자가격, 종지수집 및 착유, 에스테르화, 종자 및 기름의 운송비 등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깻묵과 글리세린 판매를 통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통하여 생산방식을 효율화할 경우 팜유보다 더 저렴한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자트로파 오일은 비식용이기 때문에 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에 비해 가격변동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바이오디젤의 원료시장에서 자트로파 오일은 가장 유망한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최근 코스닥 기업인 ICM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의 자트로파 농장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 해운시황, 벌크선 강세]

- 벌크선 운임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올해 해운시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3일 업계에 따르면 벌크선 종합운임지수인 BDI(Baltic Dry Index)가 지난해 1월 2438 포인트에서 계속 오르기 시작해 지난 9일 5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트리며 21일 현재 5226포인트를 기록함. BDI가 산정된 1985년 이래로 지수가 5천 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해운업계 초호황기였던 2004년에 두 번 밖에 없었을 정도로 드문 일임
- 벌크선 강세의 원인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철광석, 석탄, 곡물 등 벌크화물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운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음.
- 현대상선 관계자는 "2002년 경험했던 극심한 불황이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의 부족 때문이라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시황둔화는 수요에 비해 선박공급이 많아 생긴 것"이라며 "최근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황이 좋아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함.